

B.U.S Architecture

저성장시대가 낳은 건축계의 아이돌

시대는 늘 이상을 요구한다. 대형·공공 프로젝트가 많았던 시절이 고고한 대가의 시대였다면 소규모 작업, 젊은 건축주가 늘어난 현재의 건축시장에선 대중적인 건축가가 주목을 끄는 법, 각종 SNS를 누비며 '셀프 홍보'도 마다하지 않는 B.U.S Architecture를 서촌에 위치한 한옥 사무실에서 만났다.



왼쪽부터 조성학, 박지현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BUS(버스)처럼 어렵지 않게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과 'By Undefined Scale(규정되지 않은 시작점)'이라는 방법론을 담은 B.U.S Architecture. 매마른 건축 시장에서 틈새를 발견해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한 이들은 29살에 사무실을 개소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실험을 주저하지 않는 젊고 기민한 이들의 규정할 수 없는 시작의 끝, 이들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 처음엔 두 분이 아니라 친구 셋이서 사업을 시작하셨죠. 친구들끼리 사무실을 개소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궁금해요.

조성학(이하 조) 세 명이 대학교 동기였고, 학교 다닐 때부터 공동 작업을 많이 했어요. 전시 기획이나 공모전도 같이 나가구요.

박지현(이하 박) 학생 때 셋이 운영하는 작업실에서 셋이 직접 기획하고 설치까지하는 전시성격의 작업들을 여러 번 했어요. 각자 관심분야와 잘하는 부분은 서로 달랐지만 그 당시 함께 하는 일들이 무척 즐겁고 행복했어요. '언젠가 내 일을 하면 이렇게 즐겁겠구나' 싶었고, 그 즐거움의 전제에는 함께 작업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처음 뜻을 모았던 이병엽 소장은 지금은 새로운 꿈을 찾아 다른 길을 걷고 있고요.



01 02 03 150년 된 한옥을 리노베이션 해 사무실로 쓰고 있다.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방 2개를 주말에는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데 타이틀이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전통가옥'이다.

• 각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었나요?

박 저는 건축학과를 졸업할 때 꼭 건축설계사무소에 취직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학생 때 디자인 관련 잡지사에서 대외활동을 하기도 했구요. 첫 회사였던 '매니페스토 디자인랩' 역시 건축을 기반으로 브랜드, 제품디자인 등 다양한 작업을 하던 곳이었죠.

조 저는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보다 일을 하는 방식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오는 작업 결과물이 더 좋은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없을까 고민했죠. '스튜디오 케이웍스'를 가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그곳이 '커튼콜'이라고 세 명의 건축가가 함께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 때문이었어요.

• 유독 사무실 '개소'의 느낌보다 건축 '스타트업'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박 사업 초기에는 날씨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와 함께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크리에이티브 그룹'으로 회사 문화를 발전시킬 생각이었어요. 두 회사 모두 각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분리되었죠. 건축이 다른 산업에 비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느린 분야 중 하나라고 해요. 스타트업은 당대 가장 진보적이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속도가 빠른 곳들이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개소를 준비할 때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있었는데 회사를 만들기 전부터 '좋은 회사 문화란 무엇인가'가 늘 화두였어요. 지금 회사에서도 직원들과 직책을 부르지 않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존댓말을 쓰면서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 한국 나이 29살에 개소했고, 올해 3년 차예요. 일찍 개소한 데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박 제일 좋은 건 젊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계속 고민

하면서 사업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사업 초반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서비스나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한옥 별채를 주말에는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 실험을 통해 우리만의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흡수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유연함이 큰 장점이지요.

• 단점은 무엇인가요?

조 클라이언트들이 건축가를 찾아다닐 때 여러 곳을 다녀보고 저희에게 오는데, 적지 않게 듣는 이야기가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설계를 깎아 달라는 의도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저희는 분명 나이가 많지 않고, 나이가 많아서 필연적으로 얻는 경험이 적을 수 있지만, 연령대에 맞지 않게 다양하고 많은 프로젝트를 했고, 실제로 해당 건축주들이 그 건물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한 경험이 있다면 기본 베이스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충분하지 않아서 경험도 부족하다는 건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그 편견과 늘 싸우고 있죠.

•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경험'은 경력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련하고, '큰 소리' 쳐서 클라이언트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조 그런 부분만 생각하고 오는 분들은 설득에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저희와 일을 하시려는 분들은 저희에게 그런 것보다 다른 강점을 기대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박 경험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디자인에서는 시작과 끝맺음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발견하는 시도를 했느냐가 관건인데 각 분야가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요즘, 건축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와의 접점을 찾는 작업도 요즘 시대에 맞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 **작업 의뢰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나요?**

박 요즘은 포트폴리오가 쌓여서 저희 홈페이지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개소할 때 지인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던 게 행운이었죠.

• **건축사무소의 데뷔작을 보면 대부분 지인이나 가족들의 의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건축을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박 저희도 첫 번째 클라이언트를 직접적으로 안다기보다 ‘지인의 지인의 지인’ 이런 식으로 연결된 케이스예요. 초반에는 회사를 시작한다고 알려야 해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아는 사람 중에 건축사무소 한다는 데 한번 만나나 봐’ 하는 정도의 출발점이 생기는 거죠.

조 지인이라고 하지만 몇 다리 건너다보니 결국 타인인데, 저희 작업을 보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캠핑카페를 조성하는 것이었는데, 처음 미팅할 때 캠핑 관련 책을 엄청 많이 들고 갔어요. 후일담으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셨고요.

• **그래서인지 박 소장님은 파주 캠핑카페가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였다고요.**

박 초기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설계부터 완공까지 2년 반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건축주가 어릴 때부터 놀던 숲이 사이트였는데 저희도 도심이 아닌 자연에는 건축계획을 처음 해 본 거였고요.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이었다면 다 갈아엎었을 나무들을 최대한 같이 쓸 수 있도록 땅을 디자인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건축주와 함께 산에서 현장워크숍을 하면서 직접 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참여형 프로세스를 만들어 실제 결과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어요.

• **조 소장님은 어떤 프로젝트가 애착이 가시나요.**

조 저는 주택 작업을 좋아해요. 건축주와 가장 깊게 교감할 수 있고 배우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완성한 효창동 주택(본지 2월호 게재)의 경우 신혼부부의 첫 번째 집이었는데, 건축주 부부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분들과 함께한 작업이었어요. 파주 캠핑카페와 마찬가지로 사업 초기부터 저희와 함께 성장해 온 프로젝트라서 기간이 길었던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시도해보면서 회사의 매뉴얼을 정립할 수 있기도 했고요.

• **효창동 주택을 포함해 요즘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집, 일명 ‘계이득하우스’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조 ‘계이득하우스’는 契(맺을 계) 利(이로울 이) 得(얻을 득)을 풀어서

“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삶의 방식과
그 수요를 면밀하게 읽고
어떤 공간이 다음 세대에 필요할 지
제안하는 것도 건축가의 역할이에요.”



‘건축과 라이프스타일이 맺어져서 이로움을 얻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주거를 겸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을 통해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주택유형이에요.

박 저희가 젊은 만큼 클라이언트들의 나이뿐만 아니라 사고방식도 젊은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이들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는 방식이 점점 바뀌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어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주거를 겸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을 원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생계를 같이 해결하는 시도라고 봐요. 한 세대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읽고 그 수요를 건축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건축가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04 05 경기도 파주에 진행된 캠핑카페 ‘울은 휴식 HARU’. 목조로 된 7개의 글램핑시설과 카페로 운영되는 콘크리트 건물로 구성되었다. 숲 속에서의 온전한 휴식을 테마로 하여 동화같은 공간을 꾸미고 브랜딩에도 직접 참여했다.

06 ‘빈투바’ 로스터리 카페의 브랜딩 작업으로 제작한 스탬프

• **공간적으로 보면 1층에 작업실이나 상업시설이 있고 상층부에 주거공간이 있는 듯한데, 상가주택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조 상가주택의 경우 보통 1층에 정기적인 수익을 올리는 목적의 임대공간이 배치되고 그 위에 건축주의 주거공간이 들어서요. 반면 계이득하우스에서는 임대가 아니라 건축주 본인의 취미, 혹은 취미가 직업이 되는 것들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공간이 핵심이죠. 점점 프리랜서가 많아지고 있고, 흔히 ‘오타쿠 기질’이라고 하는 한 가지 분야에 깊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더 대우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계이득하우스는 이런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형태라고 생각해요.

• **형태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나 출발선이 다른 거네요.**

박 상가주택은 개발논리에 의해 시작하지만 계이득하우스는 라이프스타일과 삶에 대한 태도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물이에요. 건축주가 추구하는 삶에 꼭 맞는 공간이 요구되고 그것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브랜딩과 함께할 수밖에 없죠. 작은 공간에서 그들의 특별한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건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건축과 관계 맺는 브랜딩까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 **어떤 분들에게 이런 주택을 추천하나요?**

조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분명히 알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죠. 누가 살아도 상관없을 상가주택을 짓고 은퇴 6개월 전에 바리스타 자격증만 따고서는 1층에 카페를 창업하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들 해요. 임대를 위한 공간이 아닌, ‘내 삶을 이곳에서 이루겠다’하는 분들에게 맞을 것 같아요.

박 다양한 공간에 거부감이 없는 분들이어야 해요. 지금은 점점 주거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은 세 개 있어야 하고 면적은 이 정도 되어야 하고, 나중에 팔려면 이런 공간도 있어야 하고...’ 하는 식의 개발논리로 접근해서 집을 지었다면 이제는 본인의 삶의 방식에 맞는 공간들만 충족되면 기존의 문법과 달라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분위기에요.

• **개소 이후부터 SNS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각 채널을 운영하는 원칙이 있나요?**

박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총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각각의 채널마다 톤앤매너가 조금씩 달라요. 페이스북은 주로 새 소식이나 공식적인 내용, 이벤트 공지, 결과물 중심의 포스트라면 인스타그램은 저희 삶의 방식이나 관심사, 일상 등을 가감 없이 보여드려요. 반면 홈페이지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각각의 프로젝트를 콘텐츠화해서 블로그와 연결했어요. 블로그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작업 과정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작업했구요.

조 인스타그램은 휘발성이 강하고, 페이스북은 공지사항을 알려 공유하



“
 건축 설계만 하던 시절도 있었죠.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저희 작업은 가볍거나 진지하지 않다기보다
 직관적인 편이라고 생각해요.
 ”

기에 좋고, 블로그는 접근하는 연령층이 좀 더 높다는 각각의 특성을 반영했어요. 단, 이 모든 것들도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 프로젝트의 수에 비해 직원 수가 그리 많지 않아요. 회사의 몸집이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나요?

박 『내 작은 회사 시작하기』라는 책에서 말하길,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는 디자인이라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며 일하고 클라이언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회사가 크려면 본인들이 무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안고 회사를 무작정 키우기만 하면 회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보다 일에 회사가 끌려다니게 되면서 본인들의 문화를 잃게 되고요. 적절한 규모의 회사를 설정하고 그것들로 본인의 강점을 만들어 가는 게 가치 있다고 봐요.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 회사 규모를 키우기보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외주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B.U.S Architecture뿐만 아니라 요즘 브랜딩, 영상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는 건축가들이 부쩍 늘었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성건축가들은 '건축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하는 시각도 있어요.

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과는 다른 사회 환경 속에서 자라오셨고 건축 설계만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건축 환경은 계속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역시 기성

건축가가 될 것이고 그때는 그 시대에 맞는 또 다른 건축가가 나오겠죠. 저희의 작업이 가볍다거나 진지하지 않다기보다 직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크고, 그런 욕구의 형태가 이전과 다르게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대에 반응하는 거죠.

• 기성 건축가와 달라지고 싶다는 포부가 엿보이네요.

박 앞으로의 방향성은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세대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축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수순은 뻔하게 정해져 있어요. 학과를 졸업하고 설계사무소에서 10년 정도 배우면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회계 등은 어깨너머로 익히고 자신의 회사를 차리는 거죠. 건축을 전공하고 졸업하는 학생은 많은데 그 생태계가 일물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건축계에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조 건축설계사무소에 취업하고 자신의 사무실을 차리기 전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잘하는 후배들이 본인은 이 월급을 받으면서 건축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 역시 선배들로부터 '너는 건축하지 마라' 하고 농담 반 진담 반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럴수록 더욱 저희가 잘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겠다는 의무감을 가졌고요.



07 08 서울 효창동에 작업한 신혼부부를 위한 '게이독하우스'. 포토그래퍼 남편과 글 쓰는 아내를 위한 공간을 1층에 따로 마련하고 외부 주차장 사이에 폴딩도어를 달아 날씨가 좋으면 공간을 외부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구성했다.

건축가의 해시태그
 #정류장

회사의 이름이 일명 '버스'이다 보니 연관된 단어 중 '정류장'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작업들 하나하나를 도시의 '건축적 정류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평소 걷는 도시의 풍경에서 건축가가 참여한 작업은 정말 극히 일부이고 개발과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공공과 소통하지 않고 지어지는 집들이 동네풍경을 만드는 게 안타까워요. 우리의 작업이 그 동네의 정류장과 같은 역할을 해 여러 사람들이 좋은 '건물'과 '집'에 대한 경험을 하길 원해요. 시간이 지나 우리의 프로젝트가 실제 버스 정류장의 지명이 되었으면 더 좋겠어요. "이번 정류장은 '효창동 첫집' 앞입니다. B.U.S가 설계한 곳입니다."

B.U.S Architecture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다길 6
 02-725-9900 | www.bus-architecture.com

•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드러내는 건축가가 있는 한편, 건축주의 의견과 성향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건축가도 있어요. B.U.S는 어떤 쪽을 지향하나요?

박 건축물이 완성되었을 때 '이건 B.U.S에서 했다' 싶은 느낌을 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특히 요즘 저희가 하는 작업의 경우 사용자 맞춤형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큰데, 그건 건축주들의 상상과 희망에 따라 다 다른 거잖아요. 거기에 저희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때로는 '팩맨', 때로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콘셉트가 되기도 하고요. 건물이 세워질 땅을 기반으로 시작하되, 공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색다른 상상이 작업에 일관적으로 표현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 B.U.S Architecture에게 집이란?

조 시대에 따라 늘 변하는 게 집이잖아요. 원시시대에는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곳으로 충분했다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집도 기능과 형태가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단계, 혹은 다음 세대의 집은 경제활동이 가능하면서 한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요.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포용하는 곳이고, 이를 돕는 게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박 집은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시원, 옥탑방, 단독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유형에서 살아봤어요. 그때 각각의 유형마다 일어날 수 있는 행동과 습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습관도 빈곤해져요. 모두가 원하는 주거 유형에서 살 수 있도록 선택할 순 없지만, 건축가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윤택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에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